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남도문화 탐방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100여명이 지난 15-16일 담양에 있는 국제청소년교육재단에서 '2019 남도문화탐방'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남도문화탐방에서는 가족 간 친밀도 향상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계 힐링 체험 형태로 진행됐다. 가족 단위 바운딩 볼 놀이, 나무 목걸이 만들기, 카프라 쌓기, 숲 밧줄놀이, 세그웨이 타기, 환경 필드볼 율리, 캠프파이어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세그웨이 타기와 나무 부속물을 이용해 가족들이 함께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해 참가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됐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13년째 이전 공공기관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윤영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동반이주 비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연생태계 힐링 체험과 남도문화 탐방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빛가람 혁신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기 해외 워크샵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기 원우들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2019년 해외 워크샵'을 진행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기 원우회 제공>

문화전당 어린이활동단 '키위' 5기 광주일보 견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활동단 '키위' 5기 단원이 16일 광주일보 편집국을 방문해 기사작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각 부서의 역할과 신문발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여든아홉에 꺼낸 참혹했던 '6·25 전쟁'의 기억

당시 전투일지 책으로 펴낸 해남출신 한준식 할아버지

1953년 육군 보병학교 차출

백운산·지리산 토벌작전 등

70여년 지나도 공포·고통 또렷

젊은이들에게 전쟁의 실상 알리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소망

"결코 잊지 못할 그 때의 일을 더듬어 글로 남기기로 한 것은 내 나이 일흔 살 때였습니다. 참전 이후 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알려 후손들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기를 쓰게됐습니다."

평범한 농부로 살아온 어르신인 6·25 참전을 기록한 전투일지인 '여든아홉에 꺼내놓은 기억'을 기록한 전투일지인 '여든아홉에 꺼내놓은 기억'을 펴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목포에 사는 한준식(89)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는 1931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에서 태어났다.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김양식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 할아버지는 20살에 입대해 5년 8개월 26일을 복

무했다. 백운산·지리산 인민군 토벌 작전에 참가하고 김화지구에서 중공군에 맞섰다. 한 할아버지는 포탄 파편이 허벅지에 박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한 할아버지가 펴낸 책에는 자신이 1951년 입대 직후부터 1953년 육군 보병학교로 차출되는 과정과 함께 백운산·지리산 토벌 작전에서 병사들이 감내한 고통과 공포, 슬픔 등 다양한 내용이 글과 그림으로 담겨 있다.

한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록을 남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그 당시 벌어진 일이나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풍경, 추위, 냄새 등이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한 할아버지의 일기는 손녀 김나래(35·전안)씨가 '6·25 참전전투기록'이라 적혀있는 노트를 발견한 덕분에 세상에 공개됐다. 한씨가 틈틈이 써온 전장일기다.

지난해 8월 김씨가 '가족들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며 '내이뻐'에 '88살 할아버지의 특별한 그림일기'로 글을 올렸다. 김씨가 올린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고 조회수만 무려 22만7000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최근 출판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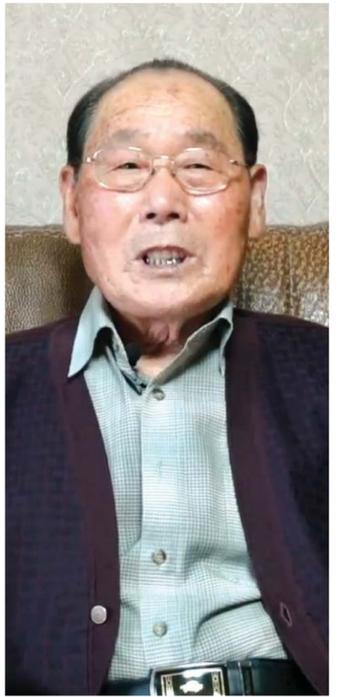
최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https://tumbbug.com/19500615)을 통해 책 판매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후원, 기부,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목표 금액인 150만원을 무려 379% 초과한 569만 6000원(355명)이 모였다.

"진심으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기를 통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독자가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온 몸으로 경험한 역사의 산 증인인 내가 사랑하는 손주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겼다.

한 할아버지는 "나와 내 전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전쟁의 위험 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면서 "어떤 압박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 본인 스스로부터 지켜야 한다. 개인의 평화와 이 나라의 평화를 모두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치과의사회 '치아사랑 건강 음악회'

'구강 보건의 날' 구강보건상 시상식 개최

광주치과의사회(회장 박창현)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시상식은 사회에 봉사하는 치과의사 유공자와 광주지역 초·중학교에서 구강검진으로 선발된 건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은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작은 음악회'를 함께 개최해 갈채를 받았다.

현재의 '구강보건상 시상식'은 1959년 제1회 건치아동 표창식이란 타이틀로 초·중학생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 광주치과의사회의 자랑스런 전통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창현 회장은 "치아사랑 저변 확대와 구강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노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조리과학과 임선호씨

조리 주니어 부문 국가대표 선발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 임선호(1)씨가 '2019 대한민국 조리 국가대표(주니어)'에 선발됐다. 임선호 씨는 '2019년 대한민국 조리 국가대표'에서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돼 각종 세계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계절샐러드'로 차가운 요리부문 금메달, 더운요리부문 금메달과 금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MLB 홈런왕 베이브 루스 유니폼

67억 낙찰...스포츠용품 최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영원한 홈런왕으로 불리는 베이브 루스의 유니폼이 역대 스포츠용품 경매 최고가에 팔렸다.

16일(한국시간) MLB닷컴,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헛트 옥션은 루스가 1928~30년 무렵 뉴욕 양키스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경매에서 564만달러(약 66억86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경매에서 440만달러(52억 1600만원)에 팔린 루스의 1920년 유니폼 가격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가다. 구매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윤상원 열사' 부친 윤석동 5·18 유족회장 별세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부친인 윤석동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윤 전 회장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당시 30세) 열사의 아버지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했다.

1982년 노동현장에서 산화한 박기순(당시 21세·여) 열사와 윤 열사의 영결혼식 넋풀이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윤 전 회장은 5·18 유족회장으로 활동하며 12·12군사반란과 5·18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농성을 하는 등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을 쏟았다.



고인은 16살 송정리 농업실습학교 학생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평생 기록을 남겼다.

그는 떠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5·18 관련 각종 기사를 일기에 기록했다. 1997년 전지가 사면 복권됐을 때는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대통합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기록했으나 지난 3월 전지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으려 광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벌을 받아.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라고 적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강석오(전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전 광주일보 부국장)·박부현씨 아들 성필균, 김서은양=29일(토) 오후 3시30분 국회헌정기념관, 피로연=15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풍서좌로 269 제이아트웨딩홀 4층 A홀.

▲박성관·윤미숙씨 아들 정준근, 오세출·김순애씨 딸 지현양=30일(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 웨딩홀 02-528-4098 (신부측 피로연 21일(금) 오후 5시 영광 청보리 한우프러자 061-351-8292).

중친회

▲(사)전주씨매 대중음악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위원회(회장 이태웅)=18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씨매 대중음악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위원회(회장 이보희)=22일(토) 오전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재영광 낙월면향우회(초대회장 장원서) 창립총회=22일(토) 오전 11시 영광 글로리웨딩컨벤션홀 010-3617-0721.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

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Advertisement for Green Restaurant (그린장례식장) featuring funeral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